사찰 천정벽화에 펼친 감로 법회

사찰벽화 명작순례

⑤ 합천 해인사 명부전 천정의 비천벽화


해인사 명부전 협간천정의 가무비천과 주악비천.


해인사 명부전 어간천정의 봉황과 학을 탄 주악비천.

운룡도(황룡)	운룡도(쌍룡)	운룡도(청룡)
공양(천도)+주악(태평소)	우물반자천정 (선학 · 연화문 단청)	주악(해금)+공양(천도)
주악(대금)+주악(장구)		가무+주악(나각)
주악(북)+주악(당비파)	주악(생황)+주악(바라)	가무+주악(박)

천정에 7점의 대형 비천벽화

해인사 명부전은 대적광전 향우측인 동쪽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고적도보〉 제13권에 수록된 해인사 사진을 보면 명부전은 조사전과 함께 현재의 위치 반대편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대비로전 위치에 있었지만 대비로전을 지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명부전은 내부에 걸려 있는 '명부전창건유공기'에 의하면, 1873년에 창건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다. 또 명부전의 주존인 지장보살삼존과 시왕, 동자상 등은 건물을 지은 후 진해 성흥사에서 옮겨 와 봉안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단청과 벽화는 광서 7년(1881년)에 수용·관허·경담 스님 등의 화승이 그렸다는 사실이 내부에 걸려 있는 '명부전단확기'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단확'이라는 개념은 안료 광물인 '단사'와 '청확'을 합성한 말로서 '단청'과 같은 말이다. 둘 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화를 뜻한다. 단청의 개념에는 '별지화'라고 부르는 벽화도 포함한다. 해인사 '명부전단확기'는 불전 건물의 벽화를 그린 사람을 알게 해 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미술사적 가치를 가진다.

해인사 명부전 내부에는 30여 점의 벽화가 현존한다. 힘차게 용틀임하는 대형 운룡도 3점, 호랑이 사냥 장면을 그린 호렵도 2점, 화조도 10점 등 붓질이 힘 있고, 또 호렵도처럼 병풍으로 제작돼 유통되던 특별한 민화 소재 벽화도 남아 있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서 유행하던 민화의 다양한 소재들이 불전의 종교 장엄까지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그중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벽화는 천정에 그린 비천 그림들이다. 천정은 층급이 없는 평반자천정으로 평평하다. 평반자천정인 까닭에 넓은 화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단청 장엄을 베풀기 위해 천정을 모두 12개의 화면으로 나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축 구조에 의해 천정에 여섯 칸의 구역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각 칸마다 두 개씩의 화면을 만들어 모두 12개의 화면으로 구획했다. 어간 중앙부 두 화면만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만든 우물반자이고 천정의 나머지 가장자리 10개 화면은 모두 널빤지로 짠 평반자이다. 하나의 화면은 8~10개의 널빤지로 이어 붙여 만들었다. 한 화면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세로 115㎝, 가로 240㎝에 이른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가 넘는다. 가로로 긴 화면 특성을 가져 화면이 시원하다. 미술품으로 환산하면 150호에 이르는 대작 크기다. 천정의 12개 화면에 그린 단청과 벽화 구성은 위 표와 같다.

명부전 천정의 12개 화면은 운룡도 3개 화면, 우물반자 단청 2개 화면, 나머지 7개 화면은 모두 비천 그림으로 구성했다. 비천벽화 7점은 향우측 협간에 3점, 어간 입구에 1점, 향좌측 협간에 3점씩 대칭적으로 배치했다. 등장하는 비천은 한 화면에 2명씩, 모두 14명이다. 네모난 평천정에 14명의 천인이 천의 자락을 나부끼며 너울대고 있다. 천정이 온통 하늘을 나는 천인들의 세계다. 밀도감 있는 천인들의 역동적인 집단 군무 의례가 경이로움과 환희의 기쁨으로 이끈다. 한국 산사 대부분의 비천벽화는 법당의 동·남·서 삼면의 가장자리 빗반자에 일렬로 쭉 파노라마식으로 나열된 형식으로 그려 배치한다. 집합 평면을 해체해서 선형으로 늘어뜨린 방식이다. 선형으로의 확장은 연속성은 살려 내지만 집중력을 흩트리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해인사 명부전의 비천벽화 경영위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반대로 점·선을 결집시켜 입체화했다. 운동장 같은 하나의 평면에 14명을 집결시킨 방식이다. 밀집도를 갖춘 집단 군무를 통해 의례의 격식도 한 차원 높이고 시각적 집중력도 극대화했다. 화면에 힘이 있고, 아우라가 있다. 화면을 기획하고 해석한 경영위치 안목이 탁월하다. 천정 평면을 환희와 예경의 의례가 이뤄지는 천상의 공간으로 해석한 괄목할 만한 해석 능력을 보여 준다.

주악비천, 가무비천, 공양비천

14명의 비천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예경을 올리고 있는가? 하늘을 나는 천인인 비천은 통상 세 부류로 나뉜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 춤사위를 펼치는 가무비천, 그리고 공양물을 올리는 공양비천의 셋이다.

해인사 명부전의 비천 14명 중 대부분은 주악비천이다. 주악비천 10명, 가무비천 2명, 공양비천 2명으로 편성했다. 주악비천은 모든 화면에 등장하고, 공양비천은 지장보살과 시왕께 앞서 나아가 헌공하는 까닭에 두 분 모두 앞 칸에 배치했다. 어린 쌍상투 머리를 한 동녀는 작은 접시 위에, 선녀형 머리를 한 천녀는 커다란 접시에 천도 형상의 과일을 담아 공양 올리고 있다.

14명 비천의 집단군무 통한 공양의례
주악비천 10명이 갖춘 전통악기 10가지
명부전 벽화에 고구려 고분벽화 전통
명부전 비천벽화는 수륙재 의미와 상통

과일 공양은 향, 차, 꽃, 등, 쌀과 함께 '육법공양(六法供養)' 중의 하나다. 왜 여섯 가지 공양물을 '육법(六法)'이라 할까? 그것은 부처님 법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등불은 진리, 향은 지계와 해탈, 차는 감로, 과일은 깨달음인 보리과의 의미를 가진다. 불교의례에서 상단에 오르는 공양물은 모두 법으로 승화돼 대중에게 회향한다. 그 또한 감로로 돌아온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공양비천과 주악비천을 함께 그린 제일 안쪽의 두 벽화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배치 구도다. 두 곳의 화면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세로는 상대적으로 짧고 가로는 길다. 역동적인 주악비천을 세로 방향 그대로 표현하기엔 화면의 세로 길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악비천을 가로로 길게 눕혀 그리는 발상을 시도했다. 화면을 적극 활용하여 허전한 곳 없이 기운생동의 에너지를 구석구석 펼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비천의 머리 장식은 묶음 머리를 하거나 모자를 착용하게 했다. 남성적인 비천은 문수동자처럼 쌍상투 묶음을 했고, 여성적인 비천은 두 개의 둥근 고리 모양으로 묶어 올린 선녀 머리 형식으로 꾸몄다. 선녀 머리 형식은 고구려 벽화고분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고분, 무용총 등에서 거문고나 완함을 연주하는 주악비천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다. 명부전 비천벽화 속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도한 미술사적 흐름이 있다. 묶음 머리를 하지 않은 비천은 모자로 멋을 부렸다. 커다란 연잎이나 활짝 핀 모란꽃을 모자 삼아 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 사또 모자를 연상하게 하는 깃 달린 전립을 쓰기도 했다. 예를 갖춘 의장의 품격이 스며 있다.

해인사 명부전 감로의 큰 수레

의식무를 펼치는 두 가무비천은 손에 든 지물이 없는 까닭에 춤사위의 몸짓이나 소매, 표대 자락 등을 최대한 크게 부풀리고 운동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양어깨는 날갯짓하듯이 활짝 펼쳤고, 발 디딤새는 박차 오르듯이 힘이 들어가 있다. 소매 자락의 펄럭임도 크고 역동적이다. 가무비천이 있는 두 화면은 남녀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있다. 가무비천이 춤사위나 소매 자락, 어깨 품이 크고 거칠면 주악비천은 힘의 요소를 약하게 틀어 보다 부드럽게 낮췄다. 큰 소매에 작은 소매를 대응시켜 들숨 날숨처럼 음양의 원리로 태극의 형세를 이루게 표현했다. 화면 하나마다 태극이 있고, 화엄이 있다. 그 원리가 전통춤과 장단의 기본 원리인 '큰 소매 작은 소매의 원리', 곧 '소삼대삼(小衫大衫)'의 원리다. 이때 '삼(衫)'은 '소매'를 뜻한다. 화면 속에 전통 춤사위의 원리가 내재돼 있다. 가무비천이 있는 두 화면은 몸짓의 질감, 팽창력, 긴장감, 변화력이 최고조로 고양돼 있다. 역동적인 힘은 특히 가무비천의 휙휙 감겨 펄럭이는 표대 자락에 직관적으로 대입시켰다. 화면의 춤사위에 흐르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지장보살 대원공덕에 대한 지극한 예경과 감로에 대한 벅찬 환희지의 은유로 봐야 한다. 음악이나 춤, 공양은 뜻의 시각화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가무비천과 소라처럼 생긴 관악기 나각을 부는 주악비천을 그린 화면은 7점의 비천벽화 중에서도 예술적 성취도가 가장 뛰어나다. 미켈란젤로가 1512년에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벽화 '천지창조'의 구도와도 닮았다. 한 쌍의 남녀로 음양의 궁극적 조화로, 태극 우주로 승화시켰다. 주돈이 선생은 〈태극도설〉에서 설했다. 태극에서 음양과 오행이 나오고 남녀가 생기고 만물화생으로 전개한다고. 서양의 성당 천정벽화에 천지창조가 있다면, 한국 산사의 천정벽화에는 남녀의 음양 조화로 표현한 태극우주가 있다.

벽화 속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은 모두 10명이다. 그것은 곧 벽화 속에 10가지 악기가 등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태평소, 나각, 대금, 생황의 관악기 4점, 당비파와 해금의 현악기 2점, 장구, 바라, 박, 북 등 타악기 4점 해서 모두 10점이다. 한 무리의 관현악단을 편성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명부전에 주악과 가무, 공양비천을 벽화로 장엄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세 비천은 곧 공양헌공과 범패(음악), 작법(춤)의 의미다. 그 조합과 편성은 불교의례의 펼침과 상통한다. 명부전은 대원본존 지장보살께서 상주하시는 불전이고, 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무대다. 의례가 명부전의 특수 공간과 결합하는 순간, 의례는 수륙재이고 예수재이며 영산재로 통한다. 해인사 명부전의 비천벽화는 우리를 감로의 법회로 이끈다. 큰 수레에 올라 다같이 법비의 감로에 젖게 함이다. 명작 비천벽화가 있는 해인사 명부전이 감로의 큰 수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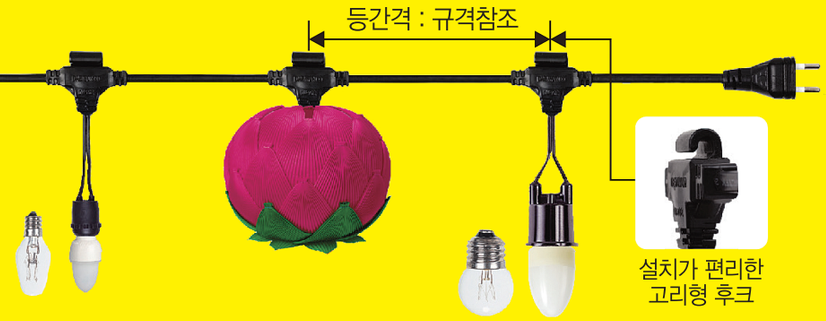
노재학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